

청소년의 SNS중독과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의 관계

신혜선*, 윤석희**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Association Between the Addiction of SNS and Ego-Identity of Youth's in Both Reality and Cyber Space

Hye-Sun Shin*, Seok-Hee Yun**

Dept. of Nursing, Namseoul University*

Dep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중독상태,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의 자아정체감의 상태를 확인하고, SNS중독여부와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SNS사용 시간이 더 많았고, SNS친구 수가 많을수록 SNS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과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하위 영역 상관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현실공간 자아정체감과 SNS중독의 각 하위 영역과도 모든 영역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SNS중독과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의 영역에서는 주도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하여 SNS중독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며, 현실공간 및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영역별로 대상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SNS중독, 현실공간, 가상공간, 자아정체감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male/female teenagers to examine the interaction between their attachment to social media and their self-identity in both real space and cyberspace. Among the subjects, male teenagers tended to use social media more than female teenagers. Also, the more friends/followers they have, the more they would use the service itself. In the subordinate correlation of the subjects' self-identity in both cyberspace and real space, most area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And each subregion of the areas of real-space ego-identity and social media addiction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m as well. On the other hand, in areas of social media addiction and cyberspace ego-identity, all area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except the area of dominance. Through this experiment, it was proven apparent that there needs to be proper management of teenagers that are overusing and are addicted to social media, and that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mediate the subjects in regards to each subregion of real space and cyberspace ego-identity.

Key Words : Youth, SNS Addiction, Real-Spaces, Cyber-Spaces, Ego-Identity

Received 26 May 2017, Revised 31 July 2017
Accepted 20 August 2017, Published 28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Seok-Hee Yun
(Dept. of Nursing, Catholic Sangji College)
Email: pretty-yunsh@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s)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SNS를 이용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1]. 대인 관계 유지 및 관리하는 목적들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SNS를 과도하게 이용하게 하고[2], 나아가 중독의 특성을 보일 수도 있다.

SNS는 이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국내 5명 중 1명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의 보급이후 스마트폰 중독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스마트폰 중독의 상당부분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와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간 연관성이 깊다[3]. 특히, 청소년들은 뇌 발달이 미숙성 단계이기 때문에, 인터넷과 SNS몰입,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이 성인보다 심각하다고 경고하고 있다[4]. 우리나라 청소년 집단 스마트폰 중독률은 18.4%이며 청소년 4명 중 1명이 중독현상을 보이고 있다[5]. 중독은 파괴적인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은 높고, 소셜미디어가 인간의 발달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다[6]. SNS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이유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특성상 휴대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또래 집단 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게임, 음악과 인터넷을 통해 오락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매개체로 자리매김 하고 있기 때문이다[7].

소셜미디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현실공간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활의 모든 측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가상공간에서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공간의 자아정체성의 이해는 현 시대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8]. 가상공간에서 구성하는 정체감은 어떤 형태든지 그 출발은 현실공간의 개인에서 시작되지만 가상공간은 현실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여러 모습을 안정적으로 통합시켜줄 신체가 삭제된 환경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공간의 정체감을 완전히 단절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9].

청소년 시기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우정적 교우관계이다[10]. SNS를 통한 의사소통 체계를 경유하여 상호작용이라는 다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11]. 가상적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다중 정체성을 형성하여, 자신이 느끼는 충동적인 측면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는 등[12]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의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다.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거나 기피하는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은 인터넷몰입과 중독의 경향이 높다[10].

청소년시기에 있어 자아정체감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성취는 일정한 연령대에 이르면 자동으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SNS라는 가상적 공간에 의존하는 요즘 청소년들은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6].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은 환경차원에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은 매우 다른 조건들을 지닌다. 두 공간 모두 자아 형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이 서로 교류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을 지닌다.[9].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은 현실공간과 사뭇 다른 조건들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장 큰 차이는 가상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인 안정된 신체가 삭제된 상태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9]. SNS이용자들은 가상공간에서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한 이상적인 자아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여러 모습의 자아가 분리되어 공존하는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다. 현실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은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교적 견고한 구조물이며,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 쉽게 변화하기 어렵다[13]. 이와 같이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인이 되었을 때 삶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확고하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8].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대학생들의 SNS상에서의 자아정체성과 현실에서의 자아정체성을 비교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여부에 따른 가상에서의 자아정체감과 현실에서의 자아정체감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연구해보고 이를 간호학적 측면으로 증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확립의 발달과업을 형성해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SNS중독과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관계를 확인하고, 청소년의 SNS중독과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SNS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 및 부모들의 자녀지도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중독상태,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의 자아정체감의 상태를 확인하고, SNS중독여부와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SNS중독상태,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과의 자아정체감을 확인한다.

셋째, SNS중독여부와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중독상태,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의 자아정체감의 상태를 확인하고, SNS중독여부와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서울소재 고등학교 2곳에서 재학중인 고등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5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19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6.2%였다. 그 중 불성실한 응답으로 분석이 불가능한 12부를 제외하고 총 182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설문지 작성하기에 앞서 본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처리 시 무기명 처리 및 자료분석 후 완전 폐기할 것을 서면으로 설명하고 제공된 정보를 이해하고 자의로 자료수집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수 설문

에 응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작성 시간은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총 182부의 설문지 중 182부 모두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28일 까지 진행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SNS중독

연구대상자의 SNS 중독은 한국정보문화 진흥원(2011)[14]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일상생활 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성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척도이다. 본 척도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81$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8$ 이었다.

2.3.2 자아정체감

연구대상자의 자아정체감은 박아청(2003)[15]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주체성 10문항, 자기수용성 10문항, 미래확신성 10문항, 목표지향성 10문항, 주도성 10문항, 친밀성 10문항으로 총 60개 문항이며, 6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한국형자아정체감 검사지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5$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였다.

2.3.3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연구대상자의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은 한국형 자정체감 검사지와 이영균(2001)[13]이 제시한구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문항을 바탕으로 하여 임호용(2011)[16]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각 하위영역으로 주체성 2문항, 자기수용성 6문항, 상호관계성 6문항, 주도성 5문항, 친밀성5문항, 상호관계성 6문항으로 총 30개 문항이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다. 임호용(2011)[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3$ 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2.0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 백분율 등으로 서술통계 하였다.

- 2) SNS중독, 연구대상자의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확인은 평균, 표준편차 등의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SNS중독, 연구대상자의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 영역별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Oneway ANOVA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 4) 도구의 신뢰도를 Chronbach α '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자93명(51.1%) 여자 89명(48.9%), SNS상에 속해있는 집단 수는 1-3개가 135명(74.2%)로 가장 많았고,경제 수준은 중류 중에 중이 91명(50.3%), 의사결정시 자신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101명(55.5%)이 응답하였다. 친한 친구 수는 5명 내외가 85명(4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당 친구들과 어울리는 횟수는 3회 이상이 가장 높은 빈도수로 107명(58.8%)이며, 하루 평균 SNS이용시간은 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81명(44.5%), SNS상 친한 친구 수는 150명이상 104명(63.4%)으로 가장 높았고, SNS이용 빈도는 인터넷 접속 때마다 이용하는 응답자가 78명(4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NS이용경로는 스마트폰이 159명(87.3%), 휴대용컴퓨터 또는 데스크탑 78명(42.8%), 태블릿 PC 7명(3.8%)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SNS 중독 위험군 분류

본 연구 대상자의 SNS중독위험군을 분류한 결과 고 위험사용자군은 전체 연구대상자 중 21명(11.5%)으로 나타났다으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은 33명(18.2%), 일반사용자군 128명(70.3%)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haracteristics		N(%)
Gender	Male	93(51.1)
	Female	89(48.9)
Grade in School	1	59(32.4)
	2	108(59.3)
	3	15(8.2)
Belonging to Group in SNS (Kakao, facebook, ect)	none	38(20.9)
	1-3	135(74.2)
	≥ 4	9(4.9)
Economy level	High	4(2.2)
	High of middle	59(32.6)
	Middle	91(50.3)
	Low of middle	21(11.0)
	Low	7(3.9)
To reflect upon decision making opinion	Oneself	101(55.5)
	Friend/senior / junior	28(15.4)
	Brothers/sisters	3(1.6)
	Parents	49(26.9)
	기타	1(0.5)
Close friend number	None	3(1.6)
	1-5	85(46.7)
	6-10	72(39.6)
	≥ 11	22(12.1)
Matching count with friends(wk)	≥ 1 time	4(2.2)
	1-2times	71(39.0)
	3times \leq	107(58.8)
Daily mean SNS using time	None	3(1.7)
	1hour \leq	61(33.5)
	1hour \leq 2hours	81(44.5)
	2hours \leq hours	19(10.4)
	3hours \leq 4hours	13(7.1)
SNS friend number	4hours \leq	5(2.8)
	None	1(0.6)
	1 \leq 50	7(4.3)
	50 \leq 100	22(3.4)
	100 \leq 150	30(18.3)
SNS frequency of utilization	150 \leq	104(63.4)
	Every time connect to the internet	78(47.6)
	≥ 10 times/day	23(14.0)
	1 ≤ 5 times/day	50(30.5)
	tridaily	8(4.9)
SNS usage route (multiple choice item)	≥ 1 /week	5(3.0)
	smart phone	159(87.3)
	laptop or desktop	78(42.8)
	tablet PC	7(3.8)
	ect	1(0.5)

<Table 2> Classification of SNS addiction risk group

Group categorization		N(%)
High-risk user group		21(11.5)
Latent-risk user group		33(18.2)
General user group		128(70.3)
Total		182(100)

3.3 SNS중독,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 자아정체감

SNS중독,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 자아정체감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SNS중독은 4개의 하위영역 중 내성영역이 10.12±3.7로 가장 높았으며 가상세계 지향영역이 3.95±1.6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실공간 자아정체감은 총 6개의 하위영역 중 현실목표지향성 항목이 24.47±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실자기수용성이 17.53±5.1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에서는 6개의 하위 영역 중 가상자기수용성이 16.3±3.38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상주체성이 4.18±1.34로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NS Addiction, Real-Spaces Ego-Identity, Cyber-Spaces Ego-Identity

			N=182
category	Sub-areas	M±SD	Rank
SNS Addiction	Tolerance	10.12±3.7	1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9.11±3.17	2
	Withdrawal	7.88±3.10	3
	Virtual world Orientation	3.95±1.62	4
	Total	30.96±9.65	
RealSpaces Ego Ident-ity	Goal orientation	24.47±6.49	1
	Initiative	24.22±6.58	2
	Intimacy	23.02±6.33	3
	Future conviction	20.83±7.19	4
	Independence	20.17±5.18	5
	Proprioception	17.53±5.18	6
Total		130.49±28.99	
Cyber-Spaces Ego-Identity	Proprioception	16.63±3.83	1
	Co-relationship	14.80±3.52	2
	Intimacy	14.34±3.48	3
	Constructive identity	13.28±3.69	4
	Initiative	10.32±2.96	5
	Independence	4.18±1.34	6
Total		73.34±11.98	

3.4 성별 및 SNS친구 수에 따른 인터넷 사용시간

본 연구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인터넷사용시간 분석결과 남·여 모두 인터넷 사용시간이 1시간이상~2시간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터넷 사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NS친구 수에 따른 인터넷 사용시간은 SNS상의 친구 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사용시간 역시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3.5 현실 및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현실 및 가상공간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현실공간 자아정체감의 6개의 하위영역 주체성(r=.284, p=.000), 자기수용성(r=.506, p=.000), 미래확신성(r=.296, p=.000), 목표지향성(r=.337, p=.000), 주도성(r=.4210, p=.000), 친밀성(r=.585, p=.000)으로 나타났으며, 가상공간 자아정체감 영역에서는 주체성(r=.328, p=.000), 자기수용성(r=.243, p=.001), 상호관계성(r=.395, p=.000), 주도성(r=.501, p=.000), 친밀성(r=.255, p=.000), 구성적 정체성(r=.354, p=.000)으로 나타나 전 영역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3.6 SNS중독과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SNS중독과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주도성영역과 내성(r=.157, p=.015), 일상생활장애(r=.209, p=.042), 금단(r=.129, p=.034), 가상세계지향성(r=.193, p=.027), 충점(r=.251, p=.004)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나머지 SNS중독과 가상공간 자아정체감 하위영역에서는 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자기수용성과 친밀성 영역에서 유의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분석결과는 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6>.

<Table 4> Internet usage time by gender & number of friends

		The Internet using time in day(hr)					Total	N=182
		≥1hour	1≤2hours	2≤3hours	3≤4hours	4≤5hours		
Gender	Male	15	33	21	13	10	92	
	Female	15	34	25	8	9	90	
Number of Friends in SNS (person)	1	0	0	1	0	0	1	
	2	3	3	3	2	1	12	
	3	2	12	6	5	1	26	
	4	4	13	12	2	3	34	
	5	21	34	24	16	14	109	

<Table 5> Correlation between reality and ego-identity in cyberspace

N=182

	Independence	Proprioception	Future conviction	Goal orientation	Initiative	Intimacy	Total
Independence	.357**	.361**	.331**	.156	.223**	.166*	.328**
	.000	.000	.000	.078	.009	.035	.000
Proprioception	.219**	.294**	.096	.151	.116	.165*	.243**
	.005	.000	.254	.079	.163	.049	.001
Co-relationship	.225**	.274**	.168*	.195*	.388**	.461**	.395**
	.004	.001	.033	.016	.000	.000	.000
Initiative	.386**	.399**	.297**	.273**	.497**	.456**	.5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Intimacy	.156	.111	.058	.224**	.288**	.495**	.255**
	.095	.189	.544	.006	.000	.000	.000
Constructive identity	.296**	.319**	.295**	.255**	.235**	.298**	.354**
	.000	.000	.001	.000	.001	.000	.000
Total	.284**	.506**	.296**	.347**	.421**	.585**	.57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p<.05, **p<.01, ***p<.001

<Table 6> Correlation between SNS Addiction and ego-identity in cyberspace

N=182

	Independence	Proprioception	Co-relationship	Initiative	Intimacy	Constructive identity	Total
Tolerance	r .085	-.354**	-.065	.157*	-.171*	.183*	-.015
	p .399	.005	.816	.015	.040	.036	.848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r .079	-.375**	.055	.209*	-.293**	.266**	-.053
	p .321	.000	.490	.042	.003	.001	.341
Withdrawal	r .045	-.113*	.045	.129*	-.107	.098	.017
	p .812	.011	.553	.034	.044	.598	.878
Virtual world Orientation	r -.013	-.146*	.099	.193*	-.911	.087	.055
	p .955	.031	.271	.027	.215	.411	.784
Total	r .061	.276**	.066	.251**	-.183*	.146	.025
	p .468	.000	.679	.004	.045	.112	.914

*p<.05, **p<.01, ***p<.001

<Table 7> Correlation between SNS Addiction and ego-identity in real space

N=182

	Independence	Proprioception	Future conviction	Goal orientation	Initiative	Intimacy	Total
Tolerance	r .377**	.235**	.288**	.273**	.214**	.145	.399**
	p .000	.002	.000	.000	.001	.048	.000
Disturbance of adaptive functions	r .182*	.181*	.161*	.134	.294**	.055	.243**
	p .014	.036	.049	.119	.001	.568	.005
Withdrawal	r .124*	.176*	.273**	.162	.237**	.145	.252**
	p .041	.039	.000	.071	.006	.088	.001
Virtual world Orientation	r .254**	.128	.106*	.255**	.333**	.159*	.282**
	p .001	.166	.025	.001	.000	.015	.000
Total	r .258**	.204*	.261**	.271**	.344**	.193*	.295**
	p .000	.021	.000	.002	.000	.045	.000

*p<.05, **p<.01, ***p<.001

3.7 SNS중독과 현실공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SNS중독과 현실공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SNS중독의 각 영역에서 내성($r=.399$, $p=.000$), 일상생활장애($r=.243$, $p=.0052$), 금단($r=.251$, $p=.002$), 가상세계지향성($r=.282$, $p=.0007$), 총점($r=.295$, $p=.000$)으로 나타났으며, 현실공간 자아정체감 각 영역에서는 주체성($r=.258$, $p=.000$), 자기수용성($r=.204$, $p=.000$), 미래확신성($r=.2616$, $p=.000$), 목표지향성($r=.271$, $p=.002$), 주도성($r=.344$, $p=.000$), 친밀성($r=.193$, $p=.045$)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7>.

4. 논의

현대인의 삶에서 SNS사용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집단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의 주이용 콘텐츠 중 하나인 SNS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17]. 대다수의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의 기능 중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 또한 SNS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다[18].

본 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중독검사결과 고위험사용자군은 전체 연구대상자중 21명(111.5%),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33명(418.2%), 일반사용자군 128명(70.3%)으로 나타났다. 같은 또래인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연구한 정경환·김봉환(2014)[18]의 연구에서는 잠재적위험 사용자군 15.8%, 고위험군이 5.3%, 일반 사용자군 250명(78.9%)으로 본 연구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반면 이와 같은 결과는 이은정, 어주경(2014)[19]과 김병년·고은정·최홍일, 2013[20]의 연구에서 중독위험군이 각각 26.7%, 27.8%였던 것 그리고 한국정보화 진흥원의 “2013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25.5%를 나타내었던 것[21]보다 낮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SNS중독, 인터넷 중독 및 스마트폰 중독정도를 검사할 때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한다는 점과 각 지역별로 인구학적인 특성과 학교별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설문조사 후 교차검증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눈여겨 볼 항목 중 SNS상 친구 수가 150

명이상인 응답자가 63.4%를 차지하였다. 청소년들의 SNS 사용 목적 중 주된 이유가 관계성과 관련된 요인이므로 이와 같은 결과는 황희은·김향숙(2015)[22]과 고은혜·배상률(2016)[23]의 연구에서 SNS 상에서 친구가 많고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오프라인에서의 또래관계가 좋을수록 SNS 중독 경향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연구한 유명옥·주세진·김주현(2014)[24]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성별, 학습취향, 학교생활 만족정도, 부모의 신뢰수준, 이성친구의 유무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과 SNS의 이용 증가가 청소년들의 사회관계 형성에 있어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5].

청소년의 현실 및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는 현실공간 자아정체감의 6개의 하위영역 주체성($r=.284$, $p=.000$), 자기수용성($r=.506$, $p=.000$), 미래확신성($r=.296$, $p=.000$), 목표지향성($r=.337$, $p=.000$), 주도성($r=.4210$, $p=.000$), 친밀성($r=.585$, $p=.000$)으로 나타났으며, 가상공간 자아정체감 영역에서는 주체성($r=.328$, $p=.000$), 자기수용성($r=.243$, $p=.001$), 상호관계성($r=.395$, $p=.000$), 주도성($r=.501$, $p=.000$), 친밀성($r=.255$, $p=.000$), 구성적 정체성($r=.354$, $p=.000$)으로 나타나 전 영역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홍(2011)[16]의 남·여 대학생 대상으로 한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비교연구에서도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간의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대부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현실공간에서의 주체성과 가상공간에서의 구성적 정체성간($p<.05$), 가상공간에서의 자기수용성과 가상공간에서의 구성적 정체성간($p<.05$), 그리고 가상공간에서의 친밀성과 가상공간에서의 구성적 정체성간($p<.05$)에서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는 유의수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였으므로 두 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은 서로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유사한 결과로 한혜경·김주희(2007)[9]의 연구에서도 주체성($r=.330$, $p=.001$), 자기수용성($r=.460$, $p=.001$), 목표지향성($r=.380$, $p=.001$), 주도성($r=.370$, $p=.001$), 친밀성($r=.520$, $p=.001$)로 이상의 결과는 두 공간의 정체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현실공간에서 용

통성 있게 관계를 형성하는데 자신감을 지닌 사람일수록 가상공간에서의 관계형성에도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지니며 현실공간에서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일수록 가상공간에서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대변해 주듯이 현실공간에서 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의자가 강할수록 가상공간에서도 역시 목표지향성이 강하며, 현실공간에서 주도적일수록 가상공간에서도 주도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현실 공간과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간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SNS친구 수에 따른 인터넷 사용시간은 SNS친구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사용시간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영균(2001)[13]의 연구와 임호용(2011)[16]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임호용(2011)[16]의 연구에서는 가상공간에서 인터넷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3시간 이상일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고, 현실공간에서는 인터넷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터넷 사용 시간의 장단(長短)에 따라 실과 가상이라는 두 공간에서 학생들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수 있다는 것이다.

SNS중독과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는 SNS중독 전체 하위영역과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자기수용성간($r=-.288, p=.000$), 주도성간 ($r=.221, p=.006$)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일부 영역에서 친밀성과 구성적정체성이 SNS하위영역 중 내성과 일상생활장애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SNS중독과 현실공간 자아정체감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SNS전체 하위영역과 현실공간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영역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가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더욱 더 몰입되어 좁고 폐쇄적인 자아가 아니라 외부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자아로 가상 공동체 내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혜경·김주희(2007)[9]의 연구에서도 가상공간보다 현실공간에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지하고 주변의 일을 스스로 주도적으로 실행한다고 평가하였다. 자기수용성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청소년들은 가상공간에서 스스로를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

고 할 수 있으며, 주도성도 마찬가지로 현실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인간관계가 가족중심에서 친구중심으로 변화하는 시기이며, 사회적 역할을 본격적으로 학습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의 혼란이 생기거나 문제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관리 및 증제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의 공격성, 우울, 자기통제력 저하 및 성적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26]. 이와 유사한 연구로 강해자(2016)[27]의 연구에서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적 증상뿐 아니라 시각, 두통, 소화관련 증상들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현숙(2017)[28]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대상자의 정서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정도 간 $p<.01$, 정신건강과 자아존중감 간 $p<.01$, 정신건강과 자기효능감간의 관계에서도 $p<.01$ 로 나타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서적 문제를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 및 정체감 형성이 가상공간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교사-학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중독상태,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의 자아정체감의 상태를 확인하고, SNS중독여부와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중 성별과 SNS상의 친구 수에 따라 SNS사용시간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SNS사용 시간이 더 많았고, SNS친구 수가 많을수록 SNS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과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하위 영역 상관관계에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현실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과 SNS중독의 각 하위영역과 모든 영역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의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에서의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얼마만큼 현실공간에서 올바른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SNS중독과 가상공간 자아정체감의

영역에서는 주도성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음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SNS중독상태,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과의 자아정체감을 확인하고 SNS중독여부와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의 차이와 현실공간 및 가상공간에서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통하여 SNS중독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며, 현실공간 및 자아정체감의 각 하위영역별로 대상자들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H. J. Song and S. Y. Oh, "A Study on MSNS(Mobile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s*, Vol. 20, No. 2, pp. 56-82, 2013.
- [2] Kuss, D J. and Griffiths, M D.,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8, No.92, pp. 3528-3552, 2011.
- [3] S. H. Lee. The Relation of Addiction and Sustainable Use of Social Media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 pp. 273-280, 2014.
- [4] B. S. Kim. A Study on Antecedents of User Addiction in Mobile Messenger Serv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3 pp. 95-103, 2014.
- [5]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SNS usage ststus." KISDI STAT Report, 2013.
- [6] M. J. Kang., "Identity and Intimacy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Differences based on the Use of the Social Media."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6, pp. 1-28, 2013.
- [7] E. J. Kim, "Effects on mobile phone functional use of ego resilience, peer attachment and mobile phone-related characteristics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338-391, 2016.
- [8] H. Y. Lim and C. I. Hwang.,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go-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Real and Cyber-space."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al affairs*, Vol. 27, No. 1, pp. 129-151, 2011.
- [9] H. K. Han and J. H. Kim, "Influence of Self-Identities in Real Space and Virtual Space on Game Addiction and Maladapt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Vol. 37, pp. 342-376, 2007.
- [10] C. R. Ryu, "Dialectical Contradictions in Adolescents' Friendships: Differences of Friendship in the Real and Cyber World." *Journal of Cyber 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Vol. 25, No. 2, pp. 35-70, 2008.
- [11] H. K. Kim and J. Y. Lee., "A Q Study for Multiple Identity Accomplished by Avata in Virtual Space." *Journal of KSSSS*, Vol. 7, pp. 27-51, 2002.
- [12] E. Y. Na and Y. R. Cha., "Determinants of Internet Group Polar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 26, No. 1, pp. 103-121, 2012.
- [13] Y. K. Lee., "A study on the formation of the self-identity in virtual spaces : a focus on the constructive identit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1.
- [14]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development of Korean smartphone addiction proneness scale for youth and adults."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 [15] A. C. Park., "Validation of Korean Adolescent Ego-identity Scale."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7, No. 3, pp. 373-392, 2003.
- [16] H. Y. Lim,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go-identity of university students in real and cyber-spa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11.
- [17] M. H. Jo, J. M. Kim, S. S. Rhu and I. H. Kim, "The Difference of The Self-Regulation and The Usage Motivation between The SNS and The Game Group in The Over usage of Smartphone of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2, pp. 297-317, 2017.

[18] K. A. Jung, B. W. Kim,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299-308, 2015.

[19] E. J. Lee, J. K. Eo, "The Differences of the Impulsivity and Parenting Attitude of the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Journal of Life-span Studies*, Vol. 4, No. 1, pp. 1-17, 2014.

[20] B. N. Kim, E. J. Ko, H. I. Choi,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in university students: A focus on differences in classifying risk group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4, No. 3, pp. 67-98, 2013.

[21] NIA, 2013 *The survey of internet addiction*. Seoul: NIA, 2014.

[22] H. E. Hwang and H. S. Kim, "Influences of Self-esteem, Social Anxiety and Interpersonal Relation Orientation on the Tendency of Social Network Service Addi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9, pp. 233-253, 2015.

[23] E. H. Ko and S. Y. Bai, "The Exploration of Factors Influencing Youth's Social Media Addiction : Focusing on SNS Usage Patterns & Parental Mediation Types." *Korea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6, pp. 451-472, 2016.

[24] M. O. Yu, S.J, Ju, J. H, Kim "A Study on Smartphone Addiction, Mental health and Impulsiveness For High School Students at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4, pp.409-418, 2014.

[25] S. Y. Park, S. H, Cho.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 through SN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371-379. 2015.

[26] I. A. Park,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Adolescent's Emotional Problems, Smart phone Dependen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 from a perspective of choice theor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5, pp. 263-268,

2016.

[27] H. J, Kang. "The relationships among smartphone use, mental health and physical health - Focusing on smartphone users' attitud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3, pp. 483-488, 2016.

[28] H. S. Lee. "Convergent Study of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ddiction to Smartphones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 Stress Level and Mental Health as Mediating Factor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8, No. 1, pp.139-148, 2017.

신 혜 선(Shin, Hye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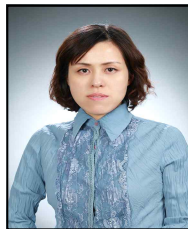


- 2009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전공(노인복지학 석사)
- 2015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4년 3월 ~ 2016년 2월 : 경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3월 ~ 현재 : 남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외래교수

· 관심분야 :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

· E-Mail : hss1275@hanmail.net

윤 석 희(Yun, Seok Hee)



- 2016년 8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가톨릭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 E-Mail : pretty-yunsh@hanmail.net